

충청남도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2022년
학교 밖 청소년
자기주도형
프로젝트

힘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 재단법인 |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CONTENTS

I. 자기주도형 프로젝트 팀 소개	3
- 배움의 공동체	4
- 프렌치 토스트	6
- 지구를 지키는 꿈드림 청소년단	8
- AAID유비쿼터스	10
- BOXes(상상하는 자들)	12
II. 소감문	17

자기주도형 프로젝트 팀소개



배움의 공동체



팀목적

대학 탐방을 통해 대학 및 학과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진로 설계를 돕고, SNS를 통해 과정을 공유하여 다른 청소년들에게도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개요

- 기간: 2022. 4. 28. ~ 2022. 11. 11.
- 장소: 레드스쿨, 충남대학교, 조선대학교, 단국대학교, 백석대학교
- 팀원: 정윤한, 정서윤, 박우빈, 박비성, 신연주, 이승우, 류승혁, 박지희 멘토
- 내용: 충남대학교 경영학과, 조선대학교 K컬처공연기획학과, 단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및 범죄심리수사학과 탐방



활동효과

- 구체적인 대학 입시 준비를 통한 진로목표 설정 체계화
- 다양한 전공에 대한 지식 습득으로 진로 설계와 전공 선택에 도움
- 프로젝트 과정을 유튜브로 제작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평가

활동 초기, 구성원간의 작은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 있었으나 함께 활동을 진행하며 협동심과 배려심을 배울 수 있었고, 이번 탐방을 통해 청소년들의 진학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모두 높일 수 있었다.



프렌치 토스트



팀목적

다양한 직업체험활동을 통해 직업들의 미래전망을 파악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진로계획 설계를 돕는다.

개요

- 기간: 2022. 4. 28. ~ 2022. 11. 11.
- 장소: 전주한옥마을, 대전청소년경찰학교, 고양샌드아트, 성남한국잡월드, 보령상담복지센터, G벨리 4차산업 체험관
- 팀원: 김주영, 김영세, 박예지, 송채나, 노유나, 윤현용 멘토
- 내용: 선자장, 청소년상담사, 경찰, 샌드 아티스트, 드론조종사 직업체험

활동효과

- 다양한 직업의 미래전망 정보 습득
- 팀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자기주도역량 향상
- 직업체험을 통한 진로에 대한 동기 강화 및 진로계획 구체화

평가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입시를 앞두고 있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좀 더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구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를 직접 선택하여 탐방하면서 이전보다 견문을 넓힐 수 있었다.



지구를 지키는 꿈드림 청소년단



팀목적

학교 밖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환경보호 운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 의식과 사회참여 의식을 향상시키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학습하도록 한다.



개요

- 기 간: 2022.4.28.~ 2022.11.11.
- 장 소: 천안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및 신부동 일대
- 팀 원: 신예진, 남민서, 박지희, 박지훈, 이효민, 양혜린, 주여정, 강하은, 송민석, 이은설, 엄대훈, 박지원 멘토
- 내 용: 천연 물품(향수, 비누, 양초 등) 제작, 지역사회 환경보호 기관 방문 및 교육 체험, 환경보호 운동 및 지역 아웃리치



활동효과

- 지역 활동에 대한 주도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지역 공동체 의식과 사회참여의식 향상
- 환경보호를 주제로 지구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실천하는 성숙한 인식 함양



평가

지역사회 기반의 체험활동을 통해 일상생활과 연결할 수 있는 실천적인 활동을 수행하였고, 꿈드림 센터의 연례행사인 자립데이와 연계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결성을 확보하였다.



AAID



팀목적

멸종위기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보호 및 생명 존중의 가치를 담은 미디어 캠페인을 진행하고, 도록을 제작하여 조성된 기금을 WWF에 기부함으로써 사회공동체 의식을 높이고자 한다.



개요

- 기간: 2022.4.14. ~ 2022.11.11.
- 장소: 에버랜드 사파리, 서울대공원, 높은 뜻 씨앗스쿨 컴퓨터실 및 미술실
- 팀원: 이주원, 황이루다, 박해건, 백시은, 조승우, 이시윤, 최시안, 이은찬, 김은재, 김유찬, 윤미나 멘토
- 내용: 동물 멸종 원인 조사 및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멸종위기동물 미디어 제작, 멸종위기동물 굿즈(키링, 배지, 도록) 제작 및 판매를 통해 기금을 조성 후 WWF(세계자연기금)에 기부



활동효과

- 멸종위기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및 보호의식 함양
- 청소년 주도적인 영상 촬영 및 발표를 통한 자기주도역량 촉진
- 공통된 주제의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팀원간의 협동심 강화



평가

프로젝트 내 단체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 및 협동심 증대를 이룰 수 있었고,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스스로 찾아보며 사고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유비쿼터스



팀목적

청소년들이 패션 브랜드를 직접 운영하며 창업역량을 성장시키고 브랜드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부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개요

- 기 간: 2022.4.14. ~ 2022.11.11.
- 장 소: 별무리 고등학교
- 팀 원: 박해찬, 김주영, 송현우, 정은택, 권려원, 이유겸, 이하영, 오주형, 이지숙 멘토
- 내 용: 의류 상품 기획 및 디자인홍보마케팅판매 진행, 판매 수익금의 일부 사회 취약계층에 기부



활동효과

- 창업경험을 통한 청소년들의 진로방향 탐색
- 팀원 및 소비자와의 의사소통 수행으로 문제해결능력 향상
- 수익금 기부활동으로 선한 영향력 전파



평가

프로젝트 활동 내 팀원 별 적절한 역할 분배를 통해 청소년들의 협업 능력과 계획했던 S/S시즌의류의 성공적인 판매로 자존감 향상을 이뤄낼 수 있었다.



BOXes



팀목적

사회적 약자의 이동을 간편화하고 보조할 수 있는 친환경 운송수단 모델 제작을 통해 청소년들의 소프트웨어관련 전문 지식을 높이고, 진로계획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개요

- 기 간: 2022.4.14. ~ 2022.11.11.
- 장 소: 별무리 고등학교
- 팀 원: 박건우, 김민채, 조승우, 조민균, 이호준, 유현, 권오하, 허경진 멘토
- 내 용: 자동차 설계도 작성, 라즈베리파이를 통한 코딩 작업, 프레임 및 외형 모터 컨트롤러근접경고장치 제작, 배터리 및 모터타이어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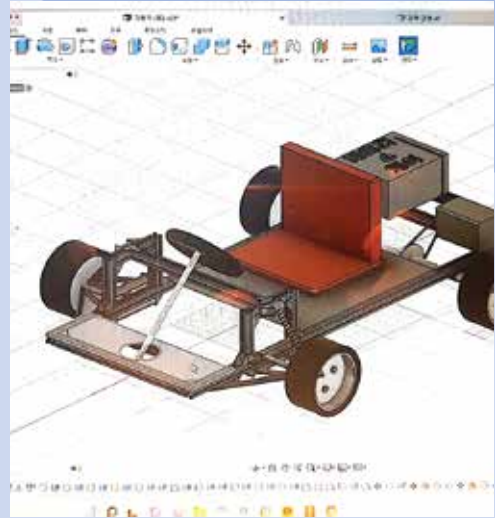
활동효과

- 차량 제작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래밍 지식 습득
- 아두이노(프로그래밍 프로그램)를 활용하며 자동차 센서의 원리 이해 및 활용
- 정보 파악을 위한 자료 검색 및 데이터 활용 능력 향상

평가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완성하지는 못했으나, 관련 정보 및 지식을 학습했고 팀원들이 함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가며 협동심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2022년 학교 밖 청소년 자기주도형 프로젝트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힘





소감문



소감문

배움의 공동체

- 정윤한** 자기주도형 프로젝트를 하면서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가지게 되어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탐방을 통해서 진로에 도움이 많이 되었고 다른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 신연주** 6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프로젝트를 하면서 도움 될만한 많은 정보를 접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단체활동인 만큼 책임감을 느꼈고, 프로젝트가 끝나니 대학탐방을 잘 끝냈다는 것에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터뷰할 때 들은 다양한 정보들이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 류승혁** 4월달부터 지금까지 대학탐방을 했는데 몇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 너무 뿌듯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대학교를 가서 인터뷰를 통해 배운게 많아서 좋았고, 다른 청소년들도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진로의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 정서운** 막연하게 생각만 해왔던 일을 자기주도형 프로젝트를 통해 실현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내 진로를 더 확실히 할 수 있었고 다양한 멘토들이 해준 말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우리 프로젝트를 통해 진로를 정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프렌치토스트

- 송채나** 자기주도형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고 함께 활동한 친구들에게 고맙다. 여러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친구들과 여러 지역으로 활동하러 가서 좋은 추억도 되었다. 그룹 활동을 하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다 같이 협력하고 분담해서 잘 해결해냈던 경험, 팀원 갈등을 대화로 원활하게 극복해냈던 경험을 통해 내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다.
- 노유나** 여러 곳을 다니며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고 체험하며 참여한 내용을 정리하여 카드뉴스로 만들어 되돌아보는 과정을 하며 그 어떤 일이든 모두 0부터 시작하기란 어렵고 그걸 미리 체험해 볼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 서로의 다른 의견으로 부딪힘도 있었지만 그걸 조율함으로써 한 뼘 더 성장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뿌듯했다.
- 박예지** 호기롭게 시작한 자기주도형 프로젝트에는 많은 이유들을 담아두었어요. 인연의 돈독함을 바라기도 하였고, 저의 역할은 무엇일까 궁금하면서도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길 바라는 마음 등등. 하지만 역할에 미숙하고, 시키는 대로가 아닌 자기 주도적인 활동이 대부분이 처음인 저희에게 자연히 예상 못 한 충돌이 잦았어요. 다른 팀들의 발표를 보고 부끄러워하기도 여러 번이 있었지만, 그 부끄러움과 성장하고 싶다는 노력이 저희의 도약이 된 것이 지금의 감사한 마음과 돈독함을 낳은 것 같습니다.
- 윤현웅 (멘토)** 작년부터 이어온 인연을 놓아주기 싫다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활동 멘토를 해줄 수 있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아이들을 더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흔쾌히 받았습니다. 한 달, 두 달, 활동이 한 번 한 번 진행됨에 따라 아이들은 성장해갔고, 보내줄 때도 다가왔습니다. 활동을 하며, 마냥 아이들이던 아이들이 입시생이 되어갔고, 조금씩 변화들도 늘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최종 발표회. 다른 팀에 비해서 부족하지는 않을까 아이들이 주눅 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지만 그동안 해내왔던 아이들을 믿으며 마지막이라는 만큼, 어떤 결과든, 피드백이든 당연한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구를 지키는 꿈드림 청소년단

- 신예진** 청소년단을 작년부터 하고 싶었지만, 마감이 끝나서 이번 연도에 하게 되었는데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고 재밌기도 하고, 많은 경험을 하게 되어서 좋았고 회장으로 투표로 뽑아서 처음으로 하게 돼서 너무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청소년단을 하고 싶습니다.
- 양혜린** 이번 청소년단 활동을 통해서 환경에 대해 더 집중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모르는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이 심각성을 알고 조금이라도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어서 유익했고 좋았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물품에도 친환경 소재로 만든 제품들이 있다는 것들도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 제품들을 통해 조금이라도 지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더 신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환경 오염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었던 기회였던 거 같아 매우 좋았습니다. 이번 청소년단 활동에 완벽히 기여는 못했지만 유익했고 즐거운 활동이었어요!
- 이은설** 지금까지 학교 밖 청소년단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감은 이번엔 환경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많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환경에 대한 시선과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 관련된 교육도 듣고 환경캠페인으로 밀랍초와 지구벤티를 나눠주는 캠페인의 프로그램을 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환경캠페인들로 인해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지구를 안전하게 지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AAID

- 최시안** 여러 곳을 다니면서 친구들과 함께 협동심을 기를 수 있어서 좋았고 앞으로도 이런 자기주도형 프로젝트가 있다면 또 참여하고 싶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 백시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동물들이 생활하는 모습과 생김새, 특징 등 여러 가지 동물들을 봐서 좋았고, 멸종위기 동물들의 슬픔과 아픔을 잘 알게 되었다. 또한 같이 활동하며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고, 이 프로젝트를 하며 더욱 성장한 느낌이 들어 시작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온다면 다시 또 시도해보고 싶다.
- 이주원** 멸종위기 동물들에 대해서 더욱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고 '우리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많은 멸종위기 동물들이 많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장소들을 돌아다니면서 친구들과의 협동심을 기를 수 있어서 좋았다. 이제 'AAID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니 계속하면서 멸종위기종의 아픔과 위기를 알리고 싶다.
- 황이루다** 이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멸종위기 동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에 대해 반성하는 마음이 들고, 고통스러워 할 멸종위기 동물들에게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가 끝나도 주변 사람들에게 멸종위기 동물의 위기를 적극적으로 전하고 싶다.

소감문

유비쿼터스

- 권러원** 자기주도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유비쿼터스의 가치와 앞으로 해나가야하는 방향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또한 팀원 간의 더 큰 유대감을 가질 수 있었으며 디자인적으로 많은 시도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 김주영** 충남꿈드림의 자기주도형 프로젝트로부터 활동비를 지원받아, 상품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목표했던 S/S 시즌을 마무리 하고 F/W를 잘 준비할 수 있어서 좋았다.
- 이하영** 자기주도형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 동아리에 대한 확신이 더 생길 수 있었고, 마케팅에 대해 더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서 도움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 이지숙 (멘토)** 자기주도형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들이 꿈꾸던 프로젝트를 도전하고, 실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역량이 개발될 뿐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이타적 삶을 경험하며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멘토로서 정말 감사했고, 아이들이 더욱 단단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시간을 보내어 참 기뻐합니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BOXes

- 조승우**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고 경험했다. 특히 자신의 생각을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되었다. 처음 우리는 차를 만든다고 할 때 대충 모터달고 나사로 차체 만들어서 완성하면 될 줄 알았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문제는 점점 늘어만 가고 진행은 더뎠다. 계속해서 정말 많은 문제에 부딪혔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공부해야 했다. 그래서 중간에는 정말 우리가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도 한번 계속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노력했다. 여전히 문제는 많고 내 실수도 생겼지만 점점 완성되어 가는 자동차를 보니 정말 기분이 좋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 김민채**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만들어주었다. 아무도 제대로 아는 것이 없었기에 하나하나 직접 찾아보면서 프로젝트의 문제들을 해결해왔다. 아무도 제대로 아는 것이 없었기에 시간도 많이 걸렸다.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아는 것이 없었기에 발생했던 많은 문제들은 팀 프로젝트란 어떻게 이루어져야하고 서로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잘 알게 해주었다. 모두가 아무것도 제대로 된 지식이 없는 상태로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은 오히려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좋은 경험이 되었다.
- 유 현** 처음에는 전기 카트를 만드는 것이 이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처음에 아무런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 해보니 처음부터가 난관이었다.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상황이 수차례 반복되었다.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해 갈수록 점점 더 완성에 가까워지고 있는 전기카트의 모습을 보며 우리들이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것이 느껴졌다. 마지막으로 완성되고 있는 카트의 모습을 보았을때는 무에서 시작해서 완성할 수 있었다는게 정말 신기하고 뿌듯했다.

끊임없이 탐구하며 포기하지 않는 삶

유비쿼터스팀 박해찬

안녕하세요, 2019년에 설립되어 막막한 현실 속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의 빛이 되고픈 패션브랜드 유비쿼터스 대표 박해찬입니다. 'Make your Dream, 모든 분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꿈을 찾아 이루시길'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유비쿼터스는 매년 두 차례 의류를 제작하여 판매하였습니다. 판매하여 난 수익의 일부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전달하는 뜻 깊은 활동들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보람찬 이 일을 하는 것은 저에게 참 많은 배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패션이라는 한 카테고리에도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이바지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경험해보았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형태를 띤 유비쿼터스는 체계적으로 일하며 하나의 기업을 보다 더 투명하고 사회에 환원하여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기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옷 디자인부터 업체 선정, 업체미팅, 판매방안 선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매와 기부까지 모든 일을 고등학생인 저와 팀원들이 기획하면서 사실 많이 힘들기도 하였습니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좋은 상품을 제작할 수 있을까, 세상에 희망적인 말을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의 브랜드가 발전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등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또한 옷을 출시하였을 때 들려오는 소비자들의 모진 말들을 들을 때 저희 팀원들 모두 심적으로 아주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겪었기에 더욱 성장한 지금의 유비쿼터스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풀리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에 실패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실패는 자신이 놓친 부분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포기입니다. 자신의 역량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일 하나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고 자신의 꿈이 있다면 그 일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달려가기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이든 어른이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꿈을 이루기 위한 일들을 해 나간다면 분명히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과 올해 자기주도형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만족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고 계실 많은 분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꼭 자신의 꿈을 따라가시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소감문

뜨겁게 마주하고, 찬란하게 빛나라!

AAID팀 윤미나 멘토

2021년 'PLAIT 프로젝트'를 계기로 '자기주도형 프로젝트'와 인연을 맺어 초등학교 친구들과 뜨겁게 활동을 하며 기반을 다졌습니다. 4대 원소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해나가자는 취지의 캠페인은 2022년 AAID 프로젝트의 근간이 되었고, 캠페인을 위한 활동에 담긴 공통된 하나의 목표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AAID는 Aid Animals In Danger의 약자로 멸종위기동물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자는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의 뜻이 담긴 프로젝트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지구 속 살아있는 생명체에 맞춰졌고, 인간들의 편리와 이기심으로 인하여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목도하게 되면서 생명존중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널리 알리고자 AAID 프로젝트 활동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지원서를 작성하고,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무작정 PPT 자료를 만들어 발표를 준비했던 AAID 팀원들의 열정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합격 후에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여 고등학교 선배들의 프로젝트를 접했고, 팀원들의 세계관과 시야는 더욱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활동에 제약이 있었지만, 계획했던 장소에 가서 거침없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내면서 체득된 모든 과정과 시간은 각 개인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참으로 값지게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 점검을 위한 중간보고회에서 진중한 태도로 주제에 몰입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멘토로서 정말 뿌듯했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팀과 팀원들에게도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과보고회를 마치고 나면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팀원들은 한 단계 훌쩍 올라서서 성장해있을 것이라는 확신의 믿음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목표 달성으로 인한 성취감과 활동의 결과물로 인한 뿌듯함이 공존하겠지요? 또한 각자가 지닌 다양한 생각을 하나의 공통된 주제로 만들기 위해 팀원들이 나누는 무수한 대화들, 그리고 '공동체의 연합'이라는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아주 가끔 '그 때의 열정'을 떠올리며 표류하지 않고 빛 가운데로 향해해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뜨겁게 빛을 비춰줘!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2022년
학교 밖 청소년
자기주도형
프로젝트

힘

충남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1100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181, 3층(두정동, 대연빌딩)
Tel.(041)554-1380 Fax.(041)554-1381
http://cnyouth.or.kr/index_kdream.php